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4주일(성 요셉 성월)

제30권 16호(다해) 2010 · 3 · 14

[묵상]



방탕한
아들의
귀가

리오넬로 스파다
(1576-1622),
유채, 두랄갱러,
파르마,
이탈리아

죄인들이 예수님께 물려듭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십니다.
그것이 못마땅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자기들과 어울릴 수준인데
자신들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불만입니다.
자기들의 시선으로 세상과 예수님을 재단합니다.
예수님께 물려든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이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이 죄인이 됩니다.
돌아온 죄인 작은아들은
아버지 품안에서
소중한 아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소중한 아들을 여전히 죄인으로 여기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은 노예처럼 따랐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따르지 못합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樞-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아 침 미 사 (레지오) 저 녁 미 사	오전 9:00 오후 7:30
금 요 일	저녁 미 사(사순시기만)	오후 7: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 - 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30 오후 1:00 오후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강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콧타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성세근 요셉
	(생)박정도 & 정람 마르시아 가정, 케네스 안드레아 해밀튼, 성낙호 요셉, 조지 가보라, 정해홍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소수연 안나, 이금순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장현숙 발바라, 김종화 야고보, 장숙환 수산나, 임은섭 도로테오, 법정스님
	(생)홍광선 & 이호미 엘리사벳, 오현옥 발비나,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 & 아네스 가정, 박해빈 크리스티나, 이영희 카타리나, 박선희 소피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여호수아기(Joshua) 5,9-11,10-12
화답송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맞들여라. <전례성가 66, 사순 제4주일 나해>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자랑해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하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 함께 그 이름 높여드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나를 들어주시고, 온갖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우리러 주님을 보라 기뻐우리라. 너희 얼굴 부끄럼이 있을리 없으리라. 보라, 가없는 이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씻어주셨도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그 돌레에 진을 친 당신의 천사가 그들을 구해냈도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맞들여라, 복되다, 그 임께 몸을 숨기는 사람이여.○
제 2독서	코린토 2서(2 Corinthians) 5,17-21
복음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환호송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복음	루카(Luke) 15,1-3,11-32
영성체송	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49	154
봉헌	409	269
성체	367	292,299
파견	154	158

1.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 인간 생명에 대한 현대의 위협 -

▶희망의 표징과 현신에 대한 초대

이러한 운동들이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단호하게 활동할 때, 생명의 가치에 대한 더 폭넓고 더 심오한 의식을 증진시키며,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결연히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환기시키고 불러일으킨다.

나아가서, 개방과 희생과 이타적인 보살핌을 위한 모든 일상적 행위들을 어찌 언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병원,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다른 센터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실천하고 있다. 교회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힘을 받아서, 자비로운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 왔다. 많은 교회의 자녀들, 특히 남녀 수도자들은, 전통적이며 전혀 새로운 형태들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해 왔고, 계속 봉헌하고 있다. 그들은 이웃을 위한 사랑, 특히 약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들을 자유로이 바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랑과 생명의 문명"의 토대들을 굳건하게 하는데, 이러한 토대 없이는 개인과 사회 생활은 그 가장 참된 인간적인 본질을 잃게 된다. 비록 대다수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추어진 채로 있다고 해도,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는 장차 이러한 행위들을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이들의 선의를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는 희망의 표징들 안에, 민족들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전쟁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새로운 의식이 여론의 다양한 차원들 속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 이러한 새로운 의식은 무장 침략자에 대항하는 효과적이면서도 "비폭력적인" 수단을 찾으려는 경향으로 두드러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보아 사형을 일종의 "정당 방위"라고 하는 경우에조차도, 사형제도에 대한 공적인 반대가 커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는 범죄자들의 갱생 기회를 결정적으로 박탈하지 않고도 그들이 해를 끼칠 수 없게 함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

또 다른 반가운 표지는 특히 선진사회에서, 삶의 질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제 생존문제들보다는 생활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반성이 다시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명 윤리학(bioethics)이 탄생하고 더욱 널리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 사이에서,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근본적 쟁점들을 포함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더 많은 반성과 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계속)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고통

‘탕자의 비유’쯤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이로 여기고 제 몫으로 돌아올 것을 쟁긴 둘째 아들의 행위는 분명 패륜입니다. 그가 겪은 고통과 수모는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뉘우쳤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가 참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만신창이로 돌아오고 있는 그를 아버지는 멀리까지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복음은 간단히 ‘가없는 마음’이라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이 ‘가없는 마음’을 무슨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를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신 마음이라 설명합니다. 수도 없이 당신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이지만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리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셨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 아들을 죄로 만드셨을까요?

하느님께서 품으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차라리 극단의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허구의 것 혹은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현상들이 허다합니다. 복음의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패륜의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바 닥 까 지 곧 두 박 질 치는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려받을 유산이라고는 ‘빈곤’

밖에 없는 젊은이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도 가엾게 여겨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게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벌여줄 몇몇 높은 분들은 지상에서 천국을, ‘이대로 영원히’를 노래하지만, 대다수의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은 “곤궁에 허덕”이고 “돼지 치는 일”자리마저 구걸하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발전과 성장, 그리고 ‘고진감래’를 들먹이며 고통을 강요하는 이들은 대연하기까지 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으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개인과 정부에 촉구한다.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지 않으면 그대가 죽이는 것이다’고 한 교부들의 말씀을 상기”(사목헌장, 69항)합시다.

패륜한 아들의 목을 끌어안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를 위해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 죄로 만들면서까지 움켜쥔 하느님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을 값싼 허구의 이야기소재쯤으로 여긴다면, 하느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회개와 참회의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서울대교구 신수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전덕례 테레사	염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해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전남숙 리디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황지영 안젤라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7:30 저녁미사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되
었으며,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중(구역순)입니다.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19일) : 하버/카슨 구역,
본당 M.E.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26일) : P.V. 구역
- ◆ 사순 특강이 매 주일미사 중에 있습니다.
● 사순 4주(3월13/14일) : 최영신 종신부제,
“종신부제와 봉사의 삶”
● 사순 5주(3월20/21일) : 양희문 신부
“회개와 화해성사”
- ◆ 사순 관공성사 : 3월23일(화)
● 참회에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도 같은 일정)
● 공동보속 : ①사도행전 통독 ②선행1회 ③주모경 1회
이중 두가지 이상 선택(특히 선행은 성당의
잡초뽑기를 권유합니다.)
- ◆ 평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 본당신부님의 남가주 성당 관공출장으로 수요일(17,24
일)/목요일(18,25일) 평일미사가 아침 9시로 임시 변경
됩니다. 저녁미사가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사순절 희생 애공을 준비합니다.
● 우리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애공봉투
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1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준결승 : 3월28일 주일(3구역팀, 3단체팀 출전)
- 결승 : 4월4일(부활절)

◆ 대학부/매론 청년회 사순 피정

- 일시 : 3월20일 오후 8시 성당에서 Lock-In
21일(주일) 아침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미션 방문
- 회비 : \$10,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최인용 안드레아 청년회장 ☎(310)386-0336

◆ 아이티 지진피해자 돕기 백삼위 성모회포 김치판매

- 일시 : 3월20/21일(토,일) 특전미사부터 주일미사까지
- 집에 있는 빈 김치병 모으기 : 300명이 필요합니다.
- 김치 담그는 날(3월19/20일) 봉사자(자매님과 특히 형제
님들)의 도움이 절실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시오.
- 문의 : 성모회장 오혜숙 루시아 ☎(310)490-3358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안내

- 일시 : 3월 21일(주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성당
- 레지오 단원들이 한해동안 악의 세력에 대항할 힘과 축복을
받는 아치에스 행사에 활동단원 및 협조단원들은 모두 나와
성모님께 충성 서약과 봉헌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장 : 한복 또는 정장

◆ 빈첸시오 불우이웃돕기 옷 수집합니다.

- 수집장소 : 친교장 앞쪽 수집함
- 모든 연령대, 모든 종류의 옷(헌옷은 깨끗이 손질해서 주실
시오.) ☎(310)283-5879 박홍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 백삼위 대학부/청년부와 CBLM(성서센터)봉사자 친교모임

- 일시 : 3월27일(토)오전 10시, 본당 축구장/친교장
- 행사내용 : 홍팀-청팀 나누기, Frisbee Football 경기,
그룹친교 및 복음나누기,
- ☎(310)738-0230 최진수 에우세비오 청년연합회 고문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14일(주일) : P.V. 1반 (육개장 \$3)
- 3월21일(주일) : 토런스 북1,2반(콩나물비빔밥 \$3)

◆ 제1회 부활맞이 친선탁구대회 준준결승 속개

- 출전팀 : 5구역/5단체팀(토런스 서-남-북, 하버카슨, P.V.
회장단, 양업-성모, 대건-자모, 원서-청년, 대학-주일학교)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영정 노혜숙 박진희 배태임 유철희 이영숙 장영진 정지숙 최태훈 박제이콧	김기정 김 욱 모은기 박준구 변복순 이귀분 이은록 정동호 정해홍 한연만	김대우 김원모 문영일 박진수 송기철 이근모 이인두 정병훈 정훈모 황학수	김병조 김 은 문충한 박현주 오 진 이상석 이효세 정상봉 차병용 영화가보라	김선제 김진숙 민기남 반비오 유영균 이상철 임연조 정연영 최상만 한길선례	김세린 노찬술 박광자 배기엽 유은영 이연행 장영우 정정현 최상만 한길선례
합계 : \$5,540						
미사헌금 : \$2,894.25						
2차헌금 : \$1,242						

성전헌금	구자운 김원모 민기남 배기엽 이근모 장영우 정훈모 영화가보라	김기정 노찬술 박광자 변복순 이상석 정동호 차병용 한길선례	김대우 노혜숙 박진희 유영균 이상철 정상봉 채양석 박제이콧	김병조 모은기 박준구 유은영 이영숙 정정현 최상만 한길선례	김선제 문영일 박진수 유철희 이은록 정지숙 최태훈 한연만	김 욱 문충한 반비오 이귀분 이효세 정해홍 한연만
합계 : \$4,495						
감사헌금 : 여경태 한길선례 문영일						

◆ 부활절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부활절 은총시장행사를 위한 도네이션(현금, 학용품, 장난감)을 받습니다. 은총시장은 초등부 학생들이 주일학교에서 각자 얻은 점수로 필요한 물건들을 살수 있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주일학교에 열심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기위하여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2세들의 신앙교육에 간접적이거나 도움을 주실분(개인, 단체)들은 주일학교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기간 : 3월 한달간(28일 주일까지)
- 문의 : 강해원 아네스 ☎(310)780-0369, 또는 사무실

◆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 일시 : 3월21일 오후 1시(20분전에 도착바람), Room 6
- 대상 : 8학년 이상으로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
- 신청 : 한국학교 교사실 * 신청비 : \$1

◆ 주일학교 견진성사

- 리허설 : 5월14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20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 5월21일(금) 오후 7시
- 대상 : 주일학교 견진성사 대상자(10학년 이상)
- 장소 : St. Margaret Mary(25511 Eshelman Av. Lomita)
- 참가비 : \$40 (파티비 포함)
- 신청 마감 : 3월21일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견진성사와 대부모는 위 3일의 일정에 모두 참여해야함

남가주 소식

◆ 제6차 성 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3월20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위터어내로 골프코스(8640 Rush St. Rosemead)
- 참가비 : \$100(그린피, 카트, 저녁식사 포함)
- 신청 : ☎(323)734-4946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최용훈 요셉 신부

◆ 2011년 세계가톨릭청소년대회 : 스페인 마드리드

- 메네틱도 16세 교황님께서 가톨릭 신앙을 함께 기뻐하고자 전세계 다문화 다민족 젊은이들을 부르십니다.
- 일정 : 2011년 8월12~23일 스페인 마드리드
- 대상 : 행사달에 16세 이상 되는 청소년과 청년들
- 인솔자 : FIAT재단 김알렉스 신부/이유진 신부
- 참가마감 : 올 2월말까지 ☎(310)985-1684 프란시스 박

이번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의 날	오전 9시30분,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광자 엘리사벳 328-0847 3/13(토) 오후 7시 성당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3/13(토) 오후 7시 성당
	3	신덕례 데레사 494-1390	신덕례 데레사 494-1390 3/20(토) 오후 7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박인식 토마스 328-1817 3/14(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스테파노 542-2952 3/18(목) 오후 7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박진숙 로사 543-9051 3/20(토) 오전 11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신정주 엘리사벳 891-1837 3/20(토) 오후 7시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3/10(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상철 크리스토퍼 793-7733 3/12(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권진열 피데스 938-3255 3/13(토) 오후 7시 성당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매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매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종열 토마스아퀴나스 784-0460 3/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박종선 리비나 748-7323 3/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국새찬 세바스찬 541-7644 3/1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박옥진 세실리아 377-0436 3/12(금) 오후 7시
	4	장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인숙 안젤라 265-4701 3/9(화) 오전 10시30분

특별! 고리

‘십자가의 길’의 유래는?

성당에 들어서면 신자석 좌우측의 벽면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백삼위 본당의 경우 서쪽 벽면). ‘14처’라고도 하는 이 길에는,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일어났던 열네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성화 또는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사순시기에 바치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로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채 처형장소로 걸아가는 데 이 십자가의 무게는 34-57kg 되는 형목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초기 교회시대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순례자들이 실제로 예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신 빌라도 관저에서부터, 죽으시고 묻히신 골고타(갈바리아)산까지 대략 1,317보(약800m)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기도드리던 데에서 유래합니다. 이 순례지가 후에 이슬람의 영토가 되면서 성지순례를 할 수 없게 되자 14-15세기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중심으로 성지 모형의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가톨릭 신심행사 중 가장 널리 알려지는 예식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을 더 깊이 체험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틀이 아니라 각 처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난 사건들을 통해 이끌어내는 기도와 묵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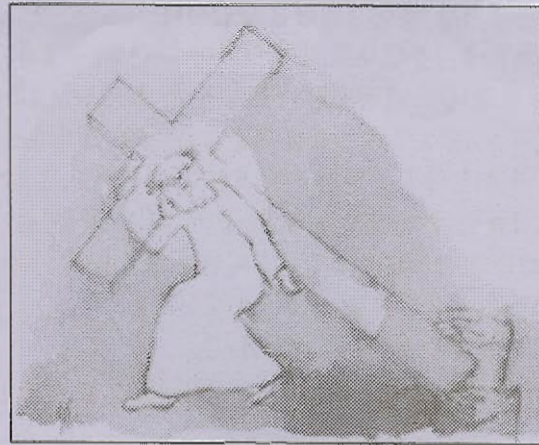
이 신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기념하고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가장 먼저 동참하신 분은 성모님이시라는 교회 전승에 기인하여 우리는 어머니께 청합니다.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글 김지영 사무엘 신부 / 그림 심용식 쥬마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는?

하느님은 우리말로는 하늘, 한자로는 천(天)의 존칭어인데 끝없이 펼쳐진 높은 창공은 그것을 창조한 절대자를 상징하며 인류 종교 현상 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종교표현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원래 가톨릭에서는 ‘천주님’이라는 말을 써오다가 1971년 한국의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성서 공동번역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야훼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고유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하느님신앙을 수용하는 중요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제외한 개신교에서는 이 합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 쓰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천주교나 불교가 우상숭배를 한다고 오해하여 그들은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 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느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天)을 지칭하는 국가 표준말이 ‘하늘’이고 애국가도 엄연히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으니 절대자의 우리말 지칭은 하느님이란 표현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은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이며, 그 어떤 인간의 언어와 단어로도 절대자이신 그분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심을 믿고 그 이름에 우리 인생의 모든 희망을 둘 때 그때 비로소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뵈고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탈출 3,6)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로마 10,13)